

신흥국 경제위기 확산 조짐...아시아 불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0년만에 최저치 하락 미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상팬 큰 충격 우려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보이는 나라가 늘면서 일부 취약국가에서 시작된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전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통화 가치가 일제히 떨어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년 만의 경기침체로 빠져들면서 랜트와 가치가 급락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아시아도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취약 신흥국 경제가 지난 6월 인상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MSCI 신흥시장 통화 지수는 전날보다 0.6% 하락해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 지수는 지난 6거래일 중 5일간 하락세를 지속해 작년 5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날 하락세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아공이 주도했다.

남아공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데 이어 2분기 GDP도 0.7% 감소하면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후퇴(Recession)에 돌입했다.

농업생산이 둔화하고 소비자 지출도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남아공은 27%를 넘는 높은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시릴 라마포사 정부의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고 연료 가격 급등도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2분기에 0.6% 성장을 기대했던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랜트와 가치는 전날보다 3% 넘게 폭락했고 5일 현재도 세계 외환시장에서 2년여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5.33랜트다.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는 달러당 38.95 페소로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전날 긴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

의하고 있지만, 페소와 하락을 막진 못했다.

또 다른 신흥국 불안의 주역인 터키는 내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으나 시장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달러당 6.68리라대의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소마 스토무 SBI증권 채권거래 제너럴 매니저는 블룸버그에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시장안정 조치가 이들 국가의 펀더멘털 개선에 충분치 않다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다른 신흥시장으로의 전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무역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아르헨티나 불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멕시코 페소와 칠레 페소, 콜롬비아 페소 가치가 일제히 1% 넘게 급락했다.

인도네시아는 통화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만 4935루피아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신흥시장의 매도세 확산으로 통화위기 전염 리스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맥없이 쓰러진 전신주 슈퍼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에 상륙한 4일(현지시간) 오사카에서 도로표지판과 전신주들이 강풍에 맥없이 쓰러져 있다. 현지 언론은 '제비'가 열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이날 현재 최소 9명이 숨지고 340명 이상이 다쳤으며 오사카 간사이공항이 물에 잠겨 이용객 5000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초강력 태풍 '제비'에 일본 마비

간사이 공항 폐쇄...유조선 파손·차량 화재도

일본 간사이 지역의 대표적 관문으로 꼽히는 간사이공항이 제21호 태풍 '제비'의 격격탄을 맞으면서 기능이 마비됐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는 '해상공항'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간사이공항이 이 번처럼 강력한 태풍 피해를 보면서 벗어난 사례로, 장기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사이공항에선 지난 4일 한국행 등 일부 항공편을 예정대로 운항하기로 해 약 3000명의 이용객이 현장에 있었지만,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자 정오께 2개 활주로를 폐쇄했다.

간사이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상의 인공섬에 위치한 공항으로, 이번에 제1터미널 지하와 주차장, 전기설비가 있는 기계실 등이 침수 피해를 봤다.

활주로는 4일 정오에 폐쇄됐고 침수로 여기에도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길이 3.8km)도 통행 불가 상태가 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사카만 인근에선 폭풍 해일로 수위가 사상 최고인 3m 29cm

까지 올라갔다.

오사카부 일부 지역에선 58.1m의 순간 풍속이 관측돼 고층건물이 강풍에 흔들리고 일부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무너질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간사이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 주변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길이 89m·2591t)이 강풍에 휩쓸려 충돌하면서 다리는 크게 파손됐다.

교통수단이 끊기고 휴대전화 연결도 어려워진 가운데 정전 피해로 음식점이 문을 닫자 공항 편의점 근처에는 음료와 식품을 사려는 이용객으로 긴 행렬이 이어졌다.

한편, 오사카 시내 일부 지역에선 높은 파도에 휩쓸린 차량 100여 대에서 접촉 불량으로 추정되는 연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세계 성인 4분의 1 이상 '운동부족'

세계보건기구, 당뇨·암 등 질병 걸릴 위험성 경고

전세계 성인 4분의 1 이상이 운동부족 상태여서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운동 부족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DPA 통신 등이 전한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세계 성인 인구 중 14억명 가량이 WHO가 권장하고 있는 주당 적당한 운동 최소 150분 또는 격렬한 운동 최소 75분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27.5%가량이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에 비해 1% 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서구의 부유국과 중남미 국가들

에서도 운동부족 성인의 비율은 지난 2001년 32%에서 2016년 3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운동부족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쿠웨이트와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등으로 사모아를 제외하고는 아랍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에서도 운동부족 성인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빈곤국들은 운동부족 성인 비율은 16%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간다와 모잠비크의 경우, 그 비율은 6%대로 세계에서 운동 부족 성인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WHO는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성인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나 취미가 많아진 데다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엔진이 달린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U 금융감독 시스템 '구멍'...북·러 연루 돈세탁 사건 잇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막아야 하는 유럽연합(EU)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감독망에 걸리지 않은 돈세탁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EU 금융당국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발생한 이들 사건은 검은돈의 흐름을 근절하기 위한 EU와 회원국의 감독과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또 EU 회원국 간 어슬픈 정보 공유, 관련 규정의 집행에 대한 EU의 자원 부족 등을 꼬집었다. 은행 규제를 맡은 유럽은행감독청(EBA)에서 돈세탁 담당 정규직원 수는 1.8명 수준에 그친다. 이런 지적은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은행, 라트비아 ABLV은행

의 돈세탁 연루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EU나 해당 회원국의 감독 또는 단속망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다.

단스케은행의 에스토니아 지점은 러시아와 옛 소련 자금의 세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규모 지점에 2013년 300억 달러(33조5천억 원)에 이르는 비거주자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한 컨설팅회사가 단스케은행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라트비아 ABLV은행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이 은행을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연합뉴스

포美 청문회 서는 페이스북·트위터 최고경영자들

지난 수개월 동안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외국 특히 러시아 정부 요원들의 플랫폼 오용과 이들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사고에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 등과 관련해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릇된 정보와 조작이 행해질 가능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의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다.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대표 변호사들이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했고, 지난 4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용자 데이터 무단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데 이어 최근 1년간 세 번째로 실리콘밸리 최고급 인사들이 워싱턴에 불려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